

문화재 286점 청주박물관 기증

김연호씨(진주동물병원장) 12년간 사재털어 수집한 것

신심 깊은 한 불자가 10년 넘게 수집한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기증했다.

화재의 주인공은 김연호 진주동물병원장(51·충북 제천시 중앙동). 지난 90년부터 12년간 골동품상과 지역 내 농가 등을 돌며 사재를 털어 모은 문화재 286점을 9월 4일 국립 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

김 원장이 기증한 문화재는 충북 지역에서 수집한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를 비롯해, 연철, 비루, 민속품, 회화류, 서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민화 계통의 그림을 담은 작가 미상의 8폭 병풍, 위사 강필주의 노안도(漁雁圖), 우암 송시열과 직계 제자 권상하의 서간, 완산 이삼만의 서첩 등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평가받고 있다.

청주박물관측은 김원장의 아호를 딴 '목정(牧亭)기념실'을 만들어 기증유물 상설 전시장을 열 계획이다. "준 것은 영원히 남고, 가진 것은



◀4일 국립 청주박물관 관장실에서 김연호 원장(왼쪽)이 이내옥 관장에게 문화재 286점을 기증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 청주박물관

무소유 실천한 것 뿐... '10만배거사' 별호

"불교문화재도 수집 성보박물관에 기증"

영원히 없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무소유 정신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문화재의 향기를 보여주고 싶어도 기증하게 됐습니다." 지난 90년에도 문화재 360점을 청

주박물관에 기증했던 김 원장. 그가 문화재 수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활동한 1972년부터다. 당시 선배였던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의 사찰 문화재 사랑은 김 원장이 특정한 불자와 문화재 수집 매니아가 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85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된 김 원장은 제천시 불교계에서 '10만배 거사'로도 유명하다. 제천불교거사협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김 원장은 98년 9월 4일부터 50일간 10만배 정진기도를 회향하고, 주위에도 '절수행' 권유를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회향할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자비심으로 녹아들 때 느꼈던 법열은 제가 불자로서 사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삶의 후득이 된 '불교신행'과 '문화재 수집'. 김 원장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98년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탕화 1점과 고려전등 2점을 기증했던 김 원장은 앞으로 불교 관련 문화재를 집중 수집해, 불교 성보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이다. 또 사경, 다도 등의 불교문화의 정수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불교문화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도외주세요



◀백혈병을 앓고있는 장병학씨.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서울아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불자가 병원비커닝 생활마저 어렵게 돼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장병학씨(46)의 불행은 IMF한파가 몰아쳤을 때부터

급성백혈병 불자 생활비 마련 애태워 5천만원 넘는 골수이식비 엄두 못내

시작했다. 운영하던 구멍가게가 인근 대형화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자, 장씨는 부동산 사무실로, 아내 문선영씨(44)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딸 현우(14)양, 지은(11)양과 떨어져 살며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버린 적도 있었다.

실상가상으로 지난해 2월, 장씨는 뜻하지 않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매달 450만원 넘는 치료비를 충당하다보니 이들 가족은 현재 아내 문씨의 친언니 집에서 '더 부살이'를 하고 있다. 마땅한 수입원

없이 영세민 혜택을 받아가며 힘겹게 생활하는 처지에, 5천만원이 넘는 골수 이식수술비는 이들 가족의 꿈까지 앓아가 버렸다.

부천 선재마을 능호스님은 "장거사는 항상 반야심경과 자비도량 참법을 읽으며 가족신행을 꾸준히 실천해온 신심 깊은 불자"라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생명나눔실천회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탈북자 포교사업 내년 본격화

포교사단, 통일특위 구성 하나원 정기법회

최근 탈북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포교원과 포교사단이 내년부터 탈북자 포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정부의 제1차 수용기관에서 탈북자들(2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 및 좌담회를 진행해 온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최근 통일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부터 안양 하나원에서 정기법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탈북자 지원프로그램 마련에 나선다. 포교사단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매주 일요일 안성 하나원에서 정기법회 및 좌담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당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조만간 탈북자 증가로 새로 개설되는 성남 하나원이 개원되면, 이곳에서도 비슷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교육을 받은 후에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지역 사찰 및 지역 포교사단과 연계해 신행프로그램을 개발, 정신적·물질적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달 말 첫 모임을 갖는 김용익 통일특별위원장은 "매년 상당수의 탈

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나 이중 불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하는 경우는 2001년 약 600명중 2.3%에 불과하고 기독교가 65%이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포교사단 차원에서 통일특위를 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탈북자 포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교사단은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해 몇달을 거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알리며 포교활동을 해왔다. 김재경 기자

국고형령협의 석호스님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문화재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범어사 석호스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4일 범어사 내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23억원을 더태내 가로챈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 때의 징역 2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영우 기자

건설사측, "위원회인원 줄이자" 주장 북한산도로 노선조사위 구성 지연

북한산 관동도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해 불교계와 건설사측이 공동으로 노선조사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건설사측이 위원회 인원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나서 조사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조계종 공대위는 5일 "건설사 측이 전문가 위주로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해 올음에 따라 4일 인선을 끝내기로 약속했던 조사위 구성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노선조사위원회 첫 회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불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노선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2일 개교

목정배총장 취임, "학행일여 대학으로 키울것"



◀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에서 보문학원 이사장 덕해스님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왼쪽부터) 녹원·도원·덕해스님, 목정배 총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종범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이사장 덕해은)은 2일 서울 금천구 목산동 학교 1층 강당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식 및 목정배 총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금천구청 한인수 청장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교식에서 이사장 덕해스님은 개교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학은 학문적 연구에만 힘써 왔을 뿐 현장에서 자비를 구현하는데는 소홀했다"며 "이번에 개교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 양성을 물

론,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보살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목정배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불교인은 불성계발과 자아확립, 자비행 등을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대승적 보살바라미를 실천하고, 배움과 수행을 함께하는 학행일여(學行一如)의 대학으로 만드는데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연면적 530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대학 행정실, 강당, 강의실, 교수 연구실, 도서관, 체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개교 첫 해인 올해 불교명상심리학과(불교교학, 명상심리치료학 전공)와 상담심리학과(상담심리학, 요가치료학 전공) 2개 석사과정에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3일 입학식에 이어 첫 강의의 시작됐다. 02808-6582 김철우 기자

열을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한가위 행사가 불교계 복지관에서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한달을 '한가위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달'로 정하고 지난 1일부터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벌

불교복지관 한가위행사 꾸밈

무료한방진료·독거노인 위로잔치등 소년소녀가장 돕기 쌀모으기 캠페인

이는 한편, 17일 오전10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무료한방진료, 영정사진 촬영, 송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02385-1351.

포항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제사상을 단채로 구입해 어려운 가정에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합동차례와 무료공양의 시간을 마련, 소외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

는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9일 치매 중증 주간보호실 이용어르신을 대상으로 '은다래 한가위 잔치'를 벌인다. 02929-7950. 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7일 주간보호센터 1층에서 '가족대항 율놀이 대회'를 연다. 031919-8677. 한편, 각 복지시설과 복지관에

서는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 김해 보현행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추석선물을 보내기 후원물품 접수를 받고 있다. 055329-0070.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잔치 행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12203-3677. 분당종합복지관은 9월 10일 복지기금 마련과 생필품 지원을 위한 자선바자회 자리를 마련한다. 02817-8052. 김철우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導)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병의령(病依靈)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격 제령 최면 -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최면 피동요법 -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피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범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안양대학교 졸업
- 세계 아마포 기공협회 회장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연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